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THE GIRL OF INK & STARS

가제 : 잉크와 별을 간직한 아이

저자 : Kiran Millwood Hargrave

출판사: Chicken House Ltd

발행일: 2015년 5월 5일

분량 : 288 페이지

장르 : YA 소설



섬의 작은 도시 속에 갇혀버린 사람들, 아빠가 만든 지도를 따라 섬을 구하러 나선 소녀

한 때는 작은 새부터 큰 새까지 다양한 새들이 찾아와 지저귀던 조야 섬에서 아빠와 단둘이 살고 있는 이사벨라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섬의 예전 모습을 늘 궁금해했다. 그 때는 사슴도 늑대도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사람들도 자유롭게 가고 싶은 곳이면 어디든 다녔다고들 이야기하지만, 열세 살인 이사벨라가 태어나기 한참 전에 이미 그런 삶은 사라져버렸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총독이 조야 섬의 수도인 그로메라 시의 평화를 산산조각 내버린 그 날부터 시작된 변화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총독이 오던 날, 까마귀 떼가 섬을 찾아왔고 다른 새들은 모두 바다를 향해 달아났다고 아빠는 이야기해주었다. 총독은 그로메라 시 경계를 따라 누구도 통과할 수 없는 거대한 벽을 세우기 시작했고, 벽이 완성되자 섬주민들은 꼼짝없이 갇힌 신세가 되고 말았다. 벽 바깥을 둘러싼 숲에는 무시무시한 가시가 돋은 나무들을 심고 총독이 세운 보초들이 하루 종일 지키면서 누구든 경계선 가까이 다가가면 거대한 종을 울려대며 경고했다. 통행의 자유를 잃은 것은 물론, 총독의 무자비하고 혹독한 통제에 힘없이 휘둘리는 삶이 이어졌다. 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총독이 대체 어디에서 왔고 왜 조야 섬으로 왔는지, 섬주민들에게 원하는 것이 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저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할 뿐이다.

색이 고운 예쁜 도자기들을 만들던 엄마는 이제 이사벨라의 머릿속에 짙은 눈동자와 항상 미소 짓던 얼굴, 가까이 다가가면 늘 풍기던 진흙 냄새로만 희미하게 남아 있다. 젊을 때 항구에서 막 떠나가는 배에 뒤통에 오르려고 뛰어내린 바람에 다리가 심하게 부러져 절름발이가 된 아빠와 엄마는 서로에게 운명과 같은 사람이었다. 아빠는 조야 섬의 유일한 지도 제작자였고, 엄마는 족히 1000년 전부터 집안에서 조상 대대로 전해진 섬 전체의 지도를 물려 받은 사람이었다. 이사벨라가 섬의 예전 모습을 늘 궁금해하는 것도 아빠 서재에 걸린 그 지도를 보면서, 어릴 때부터 섬의 구석구석에 관심을 가지며 성장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화산 속에 누워 잔다는 카나리아 제도의 전설을 토대로 그린 신비롭고 흥미로운 모험 이야기

엄마가 물려 받은 지도를 참고하며 조야 섬 전체를 지도에 담고 싶었던 아빠의 꿈은 총독이 막아버린 벽 때문에 오래 전 좌절되고 말았다. 사람마다 인생의 경로가 그려진 지도가 피부에 담겨 있고, 아빠 자신은 피 색깔조차 지도를 그리는 잉크 색깔처럼 느껴진다고 말하는 아빠에게 그 일은 평생 풀지 못한 숙제이자 한으로 남아 있다. 그런데 비극적인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어쩌면 그 꿈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길을 어린 이사벨라가 열어가기 시작한다.

긴 방학을 끝내고 찾아온 개학 날. 두근대는 마음으로 학교에 간 이사벨라는 친구가 어딘가로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얼마 후 또 다른 어린 소녀가 살해당한 채 발견되고, 총독이 세워 놓은 보초마저 정체를 모를 적에게 공격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로메라 시의 사람들은 공포에 사로잡힌다. 사람들은 언제 또 공격이 가해질지 모른다는 생각에 극도로 불안해하고, 이 위협적인 존재는 분명 총독이 가지 못하게 막은 시 바깥쪽, 조야 섬의 나머지 부분에서 찾아온 것이 분명하다는 증거들이 속속 발견된다. 외부의 적을 막는 방법은 하나, 벽 바깥으로 나가서 적의 정체를 밝히는 것뿐이다. 총독은 마지못해 벽을 넘어갈 수색 팀을 조직하고, 사라진 친구를 반드시 찾아야겠다고 결심한 이사벨라는 정체를 숨긴 채 수색 팀에 자원한다. 그러나 마침내 벗어난 벽의 바깥 풍경은 황폐한 땅이자 위험천만한 괴물들이 가득한 공포의 땅이었다. 다 말라버린 강줄기, 바싹 말라 연기가 피어 오르는 산들, 그 속에서 잠자고 있는 불의 악마. 먼 옛날부터 조야 섬에서 전해지는 소녀 전사 아린타의 전설을 기억하면서, 이사벨라는 한 걸음씩 섬 전체를 위협하는 존재를 향해 다가간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여정이 단순한 수색이 아닌, 섬을 구하기 위한 여행이 될 것이란 사실을 깨닫는다.

작가가 카나리아 제도에서 전해지는 화산 괴물 ‘과요타(Guayota)’ 신화에서 영감을 받아 완성한 모험 소설로, 풍부한 상상력으로 그려낸 마법의 세계의 이야기가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저자 소개>

키란 밀우드 하그레이브(Kiran Millwood Hargrave)는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영어와 극작품을 공부하고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글쓰기를 공부했다. 영국 셰익스피어 협회의 의뢰로 소논문 <Scavengers> 를 처음 완성하여 발표했다. 시와 단편 작품 여러 편이 <The New Writer>, <Aviary> 등의 간행물을 통해 소개됐다.

제목 : PRISONER OF ICE AND STONE

가제 : 얼음과 돌의 감옥에 갇힌 소녀

저자 : Ruth Lauren Steven

출판사: Bloomsbury

발행일: 2017년 겨울

분량 : -

장르 : YA 소설



왕국 전체가 환호하는 축제의 날, 가두 행진을 나온 왕자를 겨누는 화살촉 하나

데미도바 왕실이 이웃 나라 마가단스카와 오랜 전쟁 끝에 마침내 평화조약을 체결하기로 한 날, 애나 여왕이 공휴일로 선포한 그 축제일에 왕국의 모든 사람들이 궁전이 있는 대광장에 모여들었다. 상점이며 학교 전체가 이날 하루만은 문을 닫고 이웃 나라와의 기나긴 전쟁에 종지부를 찍을 문서에 양국 대표가 서명하는 역사적인 장면과 왕실이 준비한 퍼레이드, 화려한 축제 행사를 보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엄마가 이 왕국의 대를 이을 아나톨 왕자를 돌보며 왕가의 소중한 일꾼으로 일한 덕분에 왕실 앞마당을 자유롭게 뛰놀고 왕자와 친구처럼 지냈던 베일러는 이 들뜬 분위기 속에서 남몰래 다른 계획을 준비 중이다. 쌍둥이 동생인 사샤가 곁에 없는 지금, 사샤를 구해내려면 그 계획을 실행하는 것 밖에 달리 방법이 없었다. 왕실 가족들이 엄중한 경호를 피해 공개적인 장소로 나오는 날 한 명을 골라 없애버리는 것. 그것이 열세 살 어린 베일러가 떠올린 무서운 계획이었다.

왕국에 사는 사람은 모두 모여야 한다는 왕실의 발표에 따라 화려한 옷을 차려 입은 귀족들부터 길거리를 전전하는 거지까지 궁전 앞 대광장에 모여 인산인해를 나눈 그 시각, 얼마 전 사샤가 저지른 일 때문에 도시 바깥의 황폐한 땅으로 쫓겨난 베일러의 가족들도 인파에 섞여 있었다. 왕궁의 정문 앞에 설치된 거대한 얼음 조각상이 베일을 벗고 모습을 드러내면서 마침내 행사가 시작됐다. 팔을 길게 뻗은 댄서의 모습을 본 단 우아한 얼음 작품에 사람들이 환호하는 소리를 들으며, 베일러는 아주 어릴 때부터 사샤와 함께 발레를 배웠던 무용 학교로 몰래 들어갔다. 왕실 쪽에서는 애나 왕비를 선두로 남편인 필립 왕과 아들 아나톨 왕자까지 천천히 앞으로 걸어오기 시작했다. 왕비의 오른쪽에는 아나스타샤 공주의 모습도 보였다. 그 반대편에서 마주보고 다가오는 마가단스카의 올레게브나 여왕과 애나 여왕은 대광장 중앙 분수대에서 만나 양국의 평화유지를 약속하는 서약을 체결할 것이다. 텅 빈 학교 구석에서 몰래 준비해온 장비를 옷 속에서 꺼내 준비하면서, 베일러는 터질 듯 쿵광대는 심장을 진정시키려고 애쓴다. 양국 대표단의 느릿느릿한 걸음이 마침내 분수대 앞에서 멈추었을 때, 지체 없이 계획한 일을 실행에 옮겨야만 한다.

사라져버린 이웃 나라의 보물, 억울하게 갇힌 동생을 구하기 위해 감옥으로 뛰어든 소녀

3주 전부터 몰래 계획한 대로 베일러는 활을 쏘아 맞추기에 가장 적절한 높이에 있는 무용 학교의 작은 종탑으로 올라갔다. 한달 전, 생일을 맞아 부모님이 주신 생일 선물인 활을 이런 일에 사용하게 될 줄은, 베일러 자신도 예상하지 못했다. 왕비 옆에 서 있는 아나스타샤 공주를 보면서, 베일러는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이 된 뮤직박스를 떠올린다. 그리고 사샤에게서 전해들은 이야기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원래 먼 옛날부터 마가단스카 왕국에서 보물로 여기던 그 뮤직박스는 양국의 지루한 전쟁 기간 동안 데미도바가 빼앗아 보관해 왔다. 왕비가 여러 명 바뀌는 동안 남의 나라 보물을 보관해온 데미도바 왕실은 평화조약을 계기로 마침내 원래 주인인 마가단스카 왕국의 대표에게 뮤직박스를 조건 없이 건네주기로 약속했다. 든든한 연합군의 지원을 덕분에 우세에 있다고 자신했던 데미도바 왕실은 최근 여러 면에서 자국의 힘이 약화된 것을 인식하고, 이를 눈치챈 마가단스카가 먼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서둘러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리고 그 약속의 대가이자 신뢰의 상징으로 뮤직박스를 돌려주기로 했다. 그런데 소중한 물건을 사샤가 잃어버리고 만 것이다. 바로 오늘, 이 역사적인 날 아나스타샤 공주의 손으로 마가단스카 왕비에게 전해져야 하는 뮤직박스는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베일러는 왕국의 모든 국민들이 모인 화려한 행사와 상관없이, 약속한 그 선물이 전해지지 않으면 평화조약도 체결되지 못하리란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아나톨 왕자에게 화살을 겨눌 계획을 세우게 된 것도, 이런 생각지도 못한 비극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마침내 분수대 앞에 당도한 왕실 가족들. 베일러는 잠깐 숨을 멈추고 왕자의 어깨 쪽으로 화살을 날렸다.

빗나간 화살은 뒤편에 서 있던 얼음 조각상을 맞추고, 온 힘을 다해 달아나던 베일러는 결국 붙들려 왕자를 살해하려 한 무서운 살인자로 낙인 찍혀 감옥으로 보내진다. 베일러의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었다. 이 모든 계획이 감옥으로 가서 사샤를 구출시키기 위해 벌인 일들이었다. 마침내 만난 사샤와 베일러. 그러나 또 다시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사라진 뮤직박스 뒤에 더 거대하고 어두운 음모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두 소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저자 소개>

루스 로렌 스티븐(Ruth Lauren Steven)은 YA 소설 작가로, 신예 작가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Writersbeat.com에서 집필 활동을 시작했다. 위 작품이 데뷔작이다.